



두바퀴로 바뀌는 삶 순천은 자전거 천국

순천국제제철원박물관의 성공으로 국내 대표 생태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건설에 나섰다. 순천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생활 속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깨끗한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공영 '온누리 자전거'를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순천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동천은 순천을 상징해 온 것줄이다. 동천은 서면 청소리에서 시작해 순천의 동부 지역을 관통하고 남쪽으로 흐르면서 중간에 석련천과 옥천을 합류하고 하류에서 이사천을 합쳐져 순천만으로 흘러든다.

이런 도심의 특성을 살려 순천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해 동천 자전거길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동천 자전거길은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를 관통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순천역, 버스터미널 등 시내 곳곳에 공영 자전거 온누리를 대여하여 쉽게 동천 자전거 도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순천을 찾는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길이다.

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와 보행자의 상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자전거와 보행자의 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천에서 순천만정원까지 그리고 순천만생태공원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이다.

시는 2010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자전거 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범시민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확대 범시민 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가 있다면

동천길 강바람 맞으며 달려봐~

자전거길 늘리고 시민 보험 가입 등 인프라 대폭 확충 도심 곳곳 공영자전거 370대 비치...안전교육도 실시

◇온누리로 자전거 효과 '톡톡'=순천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시민공영자전거 온누리를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가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 자전거는 현재 회원수 6만여 명으로 자전거 대여 횟수는 2012년 10만건, 2013년 13만건, 2014년 14만건으로 회원수도 매년 만 명 이상 증가

자전거가 없다면

공영 온누리 자전거 빌려 달려봐~

하는 등 인기가 높다.

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370대, 터미널 23개소, 보관대 403대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시민 및 온누리 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시민 자전거 보험과 공공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순천시가 동천에 비치한 공영 온누리 자전거.

공공 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온누리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시는 내년에는 이용자가 적은 순천만정원 온누리 터미널을 신대지구로 이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자전거 타기 교실도 운영=순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생활형 자전거를 배우려는 주부들이 많아 집에 따라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교실은 희망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150명이 수료했다.

자전거 교실은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법 규정에 대한 이론과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실기 교육을 병행 진행 중이다.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는 면허시험자격이 주어지고 합격할 경우에는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자전거 교실과 자전거 면허증 갖기 운동 전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증진할 역할을 할 자전거 문화센터를 완공하고 지난 3월 8일 자전거 문화센터도 개관했다.

자전거 문화센터는 박물관 습지센터 서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체계적 자전거 교육과 자전거 홍보 및 전시 시설로 자전거 이용객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정비소, 휴게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국가 인프라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안월사거리에서 순천만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별량면 인월사거리에서 별량면 우명마을을 자전거 도로, 별량면 우명마을에서 동막2교 자전거 도로, 해룡면 신대간 도로에서 광양경계 자전거 도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국비 52억7000만원과 시비 52억700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 보성경계에서 광양경계 지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완료할 계획이다. 총 구간은 40.18km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ikim@kwangju.co.kr

순천시 내년 예산

8425억원 편성

순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8425억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순천시는 25일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050억원, 특별회계 1375억원 등 총 842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542억원(6.9%)이 늘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98억원, 세외수입 342억원, 지방교부세 2천735억원, 조정교부금 185억원, 국도비 보조금 2천420억원, 보전수입 370억원 등이다.

주요사업별 예산은 이사천과 동천 등 생태하천 조성에 279억원, 기초노령연금 612억원, 영유아보육료 408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원, 학교무상급식과 식재료 지원 144억원 등이다.

의회는 이번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확정할 예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이날 순천시의회 예산안 제안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은 30만 자족도시 완성,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를 만들어 가고자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 선택과 집중해 편성했다"며 "시민의 행복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ikim@

월남참전유공자회 순천시지회

이주여성 5명과 양부양녀 결연

월남 참전 용사와 이주여성이 부녀의 인연을 맺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월남참전유공자회 순천시지회(지회장 박영진)는 25일 "베트남 이주여성 5명과 오는 21일 순천보훈회관에서 양부양녀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결연증서 전달 및 기념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연식을 통해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와 베트남에서 이주한 베트남여성이 1대 1로 양부양녀의 관계를 맺어 이주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박영진 지회장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펼치게 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언어소통 부재와 문화차이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양부양녀 결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타국에서 편견과 문화의 차이, 외로움 등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주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월남참전자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은 326가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i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8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8-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암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하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여행구독 - 062 220-0550